

정론

위대한 당을 따라 하늘땅 끝까지

성스러운 추억이 가슴을 파고드는 10월이다.

10월 8일, 장장 수십 성상 우리 당을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당, 주체의 혁명적당으로 강화발전시켜오신 위대한 장군님을 조선로동당 흥미서로 높이 추대하며 천안에 터치면 그날의 환호성 어제어제 생생한 데 어느덧 20년이다.

우리 당의 강화발전에 살아온 우리 당에 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되새기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하신 말씀 10월의 하늘기에 머물려왔다.

장군님을 하늘처럼 믿고 살아온 우리 인민들과 인민군장병들의 심장에 장군님은 민족의 어버이로, 우리 당의 흥미서로 깊이 새겨져있으며 세상사람들도 그것을 공인하고 있습니다.

우리 장군님 한평생 높이 휘날려오신 주체의 뿐은 당시, 강렬의 당으로 강화발전시켜주신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한 편은 그리움이다. 장군님의 한생이 어린 주체의 뿐은 당시 계속해서 날려지며 이조선 만행들은 김일성주의의 묘구에 저어지는 모든 것을 헤아려며 자력의 지정학으로 가치를 높여 모신 궁지와 영광, 위대한 우리 당 따라 하늘땅 끝까지 가고자 천안의 신념과 의지 용암처럼 라번지는 우리의 10월이다.

1

바로 저 하늘이다.

우리 국가의 자존과 권위, 강용한 우리 인민의 불굴의 기개를 펼치며 우리의 대륙 간판도로제들이 자랑한 승리의 비행 운동을 세간 하늘, 원수들의 제재 압살에 동속에서 이들로 품을 얻은 인민의 웃음소리 광범히 울려가는 하늘...

풀이 맑고 주된 행복의 그 하늘이 과연 어떻게 펼쳐지고 인민의 미래에 번창 없이 미처 있는 가를 가슴치게 새겨두며 10월의 하늘기에 우리의 뿐은 당시가 힘차게 날아나갔다.

강국의 하늘기에 날리는 주체의 뿐은 당시, 얼마나 가슴짓는 화복인가. 진정 얼마나 이를 못할 걱정으로 우리 가슴 설레이게 하는 10월의 뿐은 당시가 힘차게 펼쳐졌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장군님께서 우리 당을 수령의 사상체계와 행동체계가 확고히 선 혁명적 당으로, 인민대중과 혼연일체를 이루고 인민대중을 위하여 목부하는 어머니당으로, 강철같은 규율과 전투력을 지닌 당으로 강화발전시켜야 한다는 당의 명령과 위용을 만방에 알리신 것은 우리 당역사에 빛나게 아로새겨질 가장 특출한 업적입니다.』

당이 무엇인가.

우리는 그 대답을 보람찬 통령과 가슴벅찬 승리속에서 알았다.

당, 언제나 정의의 사상과 신념으로 우리 심장의 피와 세차게 끌어 하고 뱉을 떨어져서는 어제인 손길이 있다. 걸음마다 일을 막아서는 시련속에서도 추호의 동요없이 펼승의 용맹을 안고 전진 또 전진하게 하면 어제인 손길이 있다. 위훈의 품을 얻은 심장에는 칭조의 나래를 주고 자라나는 아이들에게는 행복의 고운 풍을 주는 고마운 품...

진정 행복이라는 말, 승리와 번영이라는 말, 밟고 향상한 미려라는 말과 같은 우리 당시이다. 이 세상 어느 인민도 지닐수 없는 그처럼 쾌고 소중한 당복을 우리에게 주신분은 위대한 장군님이시다.

어떤 면세기가 넘었다.

당중앙위원회 창립기념비는 당시에는 당시를 불러올 헤치며 간고한 시련의 악력을 넘어온 승리와 영광의 기발이며 혁명의 기발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저 뿐은 기발을 높이 휘날려나가야 합니다.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50년 전 6월의 그 아침, 한밤을 짐으로 밟고 신변에 수수한 혼방직옷 차림으로 새벽이 술에 젖은 당시 중앙구내에서 당시에 펼쳤던 당기발을 바라보며 하신 이교시는 오늘도 우리 가슴 후텁니다.

우리 장군님께서 강철의 전위조직으로 다져주신 물체의 당시 있어 우리는 진정 열마나 높이 높은 당기발을 끝까지 펼쳤습니다.

본사기자 회총성 창

기념비는 그대로 인민대중의 자주적 요구와 힘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하여온 위대한 역사로 놓았습니다.

천리마에 속도전을 가한 기세로 내달린 상조와 건설의 불바람도, 반사회주의의 역풍 속에서도 끄떡없이 솟아 위용떨친 사회주의 신념의 승리도 바로 위대한 우리 당기록에 이룩한 것이다.

천우들이 조선의 봉파는 시간문제라고 폐제를 풀려온 시간과 깨어난 고난의 행군, 강행군의 언덕도 우리는 당시에 있는 영웅적으로 강행돌파하지 않았던가.

위대한 당만 있으면 천우들의 제제와 압살공세도 두렵지 않고 자력경쟁대전군의 승전포성을 높이 높이며 더 밝은 평일을 향해 힘차게 나아갈수 있다.

보라. 천우들은 12월의 피눈물언덕을 넘고 해체되었던 우리 당에 향원한 흥미서로 높이 모시고 수령님들의 당전설사장파 업적을 더욱 빛내여 여기서는 경애하는 원수님.

조선로동당 제4차 대표자회, 조선로동당 제4차 새포비서대회, 조선로동당 제8차 사상일군대회, 조선로동당장전 70돐경축 열병식 및 평양시 군중시위, 우리 당역사에 투기한 승리와 영광의 대회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위대한 장군님을 우리 당의 영원한 흥미서로 높이 모시고 수령님들의 당전설사장파 업적을 더욱 빛내여 여기서는 경애하는 원수님.

천만이 아버지로 그 품에서 가슴에 찬 승리와 영광만을 엮이고 꾼없는 행복을 누리는 인민이 심장으로 터진 이 부름이다.

어민 주체의 뿐은 당시 높이 들고나아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기연의 서계신다.

위대한 김정은대!

세상이 말하고 세인이 경관한다. 참으로 눈부신 우리 당의 품과 티상이 한희롭게 풋되는 시대, 자주와 정의가 승리하고 불의가 평강의 나락에 깊숙이 처박히는 격동적인 시대를 안아올리실 경애하는 원수님.

어찌면 그려도 강하고 억세어이신가.

온 세상을 친감하는 그 품과 위용, 태양의 빛발로 발산되는 무한대의 정과 사랑은 과연 어디에 뿐인가?

위대한 어머니!

천만이 터진 부름이다. 그 품에서 가슴에 찬 승리와 영광만을 엮이고 꾼없는 행복을 누리는 인민이 심장으로 터진 이 부름이다.

조선로동당은 이 세상 가장 뜨겁고 위대한 그 사랑과 정을 동쪽으로 하여 억세게 전진하는 혁명의 기관차이다. 우리 인민은 바로 그 무한한 사랑과 정에 빛날려 승리와 영광의 최고봉에 끌어없이, 끌어없이 오르는 궂지높은 인민이다.

* *

10월, 풍요한 가을이다.

우리의 『화성』로드들이 기세차게 날아온 강국의 위용이 만방에 펼쳐진 그 하늘 아래 희한한 파일대총이 들어 만사를 기쁘게 한다. 나라의 협동연합에서는 거울을 거울이 전투의 새 소식들 편이 빛나고 당중앙의 시험포전인 1·1·6 호농장의 벼마다. 강생이 바다의 파도소리가 숭리의 개기인듯 차— 차— 살피킨다.

이 땅에 이룩되는 기적과 사연들을 광복하다. 그러나 더욱 귀중한것은 바로 당에 대한 인민의 믿음이 빽빽하게 짙어졌다.

고난과 시련은 아무리 세도로 인민의 마음속에는 위대한 당을 따르는 걸에 우리의 승리는 꽃피어 있다. 그런 데 한달을 끌어오신 우리 원수님 광활한 사파마디앞에서 그들이 줄어들었지. 종일이라도 그렇게 과수밭을 거닐고 살피으신듯 이 나무에서 저 나무에도 걸음을 옮기면서 정말 기분이 좋고 아끼는 걸로 날고 있다. 말걸음이 풍물처럼 하늘을 펼쳐진 그 파일대총이 들어 만사를 기쁘게 한다. 나라는 협동연합에서는 거울을 거울이 전투의 새 소식들 편이 빛나고 당중앙의 시험포전인 1·1·6 호농장의 벼마다. 강생이 바다의 파도소리가 숭리의 개기인듯 차— 차— 살피킨다.

이 땅에 이룩되는 기적과 사연들을 광복하다. 그러나 더욱 귀중한것은 바로 당에 대한 인민의 믿음이 빽빽하게 짙어졌다.

고난과 시련은 아무리 세도로 인민의 마음속에는 위대한 당을 따르는 걸에 우리의 승리는 꽃피어 있다. 그런 데 한달을 끌어오신 우리 원수님 광활한 사파마디앞에서 그들이 줄어들었지. 종일이라도 그렇게 과수밭을 거닐고 살피으신듯 이 나무에서 저 나

무에도 걸음을 옮기면서 정말 기분이 좋고 아끼는 걸로 날고 있다. 말걸음이 풍물처럼 하늘을 펼쳐진 그 파일대총이 들어 만사를 기쁘게 한다. 나라는 협동연합에서는 거울을 거울이 전투의 새 소식들 편이 빛나고 당중앙의 시험포전인 1·1·6 호농장의 벼마다. 강생이 바다의 파도소리가 숭리의 개기인듯 차— 차— 살피킨다.

이 땅에 이룩되는 기적과 사연들을 광복하다. 그러나 더욱 귀중한것은 바로 당에 대한 인민의 믿음이 빽빽하게 짙어졌다.

고난과 시련은 아무리 세도로 인민의 마음속에는 위대한 당을 따르는 걸에 우리의 승리는 꽃피어 있다. 그런 데 한달을 끌어오신 우리 원수님 광활한 사파마디앞에서 그들이 줄어들었지. 종일이라도 그렇게 과수밭을 거닐고 살피으신듯 이 나무에서 저 나

무에도 걸음을 옮기면서 정말 기분이 좋고 아끼는 걸로 날고 있다. 말걸음이 풍물처럼 하늘을 펼쳐진 그 파일대총이 들어 만사를 기쁘게 한다. 나라는 협동연합에서는 거울을 거울이 전투의 새 소식들 편이 빛나고 당중앙의 시험포전인 1·1·6 호농장의 벼마다. 강생이 바다의 파도소리가 숭리의 개기인듯 차— 차— 살피킨다.

이 땅에 이룩되는 기적과 사연들을 광복하다. 그러나 더욱 귀중한것은 바로 당에 대한 인민의 믿음이 빽빽하게 짙어졌다.

고난과 시련은 아무리 세도로 인민의 마음속에는 위대한 당을 따르는 걸에 우리의 승리는 꽃피어 있다. 그런 데 한달을 끌어오신 우리 원수님 광활한 사파마디앞에서 그들이 줄어들었지. 종일이라도 그렇게 과수밭을 거닐고 살피으신듯 이 나무에서 저 나

무에도 걸음을 옮기면서 정말 기분이 좋고 아끼는 걸로 날고 있다. 말걸음이 풍물처럼 하늘을 펼쳐진 그 파일대총이 들어 만사를 기쁘게 한다. 나라는 협동연합에서는 거울을 거울이 전투의 새 소식들 편이 빛나고 당중앙의 시험포전인 1·1·6 호농장의 벼마다. 강생이 바다의 파도소리가 숭리의 개기인듯 차— 차— 살피킨다.

이 땅에 이룩되는 기적과 사연들을 광복하다. 그러나 더욱 귀중한것은 바로 당에 대한 인민의 믿음이 빽빽하게 짙어졌다.

고난과 시련은 아무리 세도로 인민의 마음속에는 위대한 당을 따르는 걸에 우리의 승리는 꽃피어 있다. 그런 데 한달을 끌어오신 우리 원수님 광활한 사파마디앞에서 그들이 줄어들었지. 종일이라도 그렇게 과수밭을 거닐고 살피으신듯 이 나무에서 저 나

무에도 걸음을 옮기면서 정말 기분이 좋고 아끼는 걸로 날고 있다. 말걸음이 풍물처럼 하늘을 펼쳐진 그 파일대총이 들어 만사를 기쁘게 한다. 나라는 협동연합에서는 거울을 거울이 전투의 새 소식들 편이 빛나고 당중앙의 시험포전인 1·1·6 호농장의 벼마다. 강생이 바다의 파도소리가 숭리의 개기인듯 차— 차— 살피킨다.

이 땅에 이룩되는 기적과 사연들을 광복하다. 그러나 더욱 귀중한것은 바로 당에 대한 인민의 믿음이 빽빽하게 짙어졌다.

고난과 시련은 아무리 세도로 인민의 마음속에는 위대한 당을 따르는 걸에 우리의 승리는 꽃피어 있다. 그런 데 한달을 끌어오신 우리 원수님 광활한 사파마디앞에서 그들이 줄어들었지. 종일이라도 그렇게 과수밭을 거닐고 살피으신듯 이 나무에서 저 나

무에도 걸음을 옮기면서 정말 기분이 좋고 아끼는 걸로 날고 있다. 말걸음이 풍물처럼 하늘을 펼쳐진 그 파일대총이 들어 만사를 기쁘게 한다. 나라는 협동연합에서는 거울을 거울이 전투의 새 소식들 편이 빛나고 당중앙의 시험포전인 1·1·6 호농장의 벼마다. 강생이 바다의 파도소리가 숭리의 개기인듯 차— 차— 살피킨다.

이 땅에 이룩되는 기적과 사연들을 광복하다. 그러나 더욱 귀중한것은 바로 당에 대한 인민의 믿음이 빽빽하게 짙어졌다.

고난과 시련은 아무리 세도로 인민의 마음속에는 위대한 당을 따르는 걸에 우리의 승리는 꽃피어 있다. 그런 데 한달을 끌어오신 우리 원수님 광활한 사파마디앞에서 그들이 줄어들었지. 종일이라도 그렇게 과수밭을 거닐고 살피으신듯 이 나무에서 저 나

무에도 걸음을 옮기면서 정말 기분이 좋고 아끼는 걸로 날고 있다. 말걸음이 풍물처럼 하늘을 펼쳐진 그 파일대총이 들어 만사를 기쁘게 한다. 나라는 협동연합에서는 거울을 거울이 전투의 새 소식들 편이 빛나고 당중앙의 시험포전인 1·1·6 호농장의 벼마다. 강생이 바다의 파도소리가 숭리의 개기인듯 차— 차— 살피킨다.

이 땅에 이룩되는 기적과 사연들을 광복하다. 그러나 더욱 귀중한것은 바로 당에 대한 인민의 믿음이 빽빽하게 짙어졌다.

고난과 시련은 아무리 세도로 인민의 마음속에는 위대한 당을 따르는 걸에 우리의 승리는 꽃피어 있다. 그런 데 한달을 끌어오신 우리 원수님 광활한 사파마디앞에서 그들이 줄어들었지. 종일이라도 그렇게 과수밭을 거닐고 살피으신듯 이 나무에서 저 나

무에도 걸음을 옮기면서 정말 기분이 좋고 아끼는 걸로 날고 있다. 말걸음이 풍물처럼 하늘을 펼쳐진 그 파일대총이 들어 만사를 기쁘게 한다. 나라는 협동연합에서는 거울을 거울이 전투의 새 소식들 편이 빛나고 당중앙의 시험포전인 1·1·6 호농장의 벼마다. 강생이 바다의 파도소리가 숭리의 개기인듯 차— 차— 살피킨다.

이 땅에 이룩되는 기적과 사연들을 광복하다. 그러나 더욱 귀중한것은 바로 당에 대한 인민의 믿음이 빽빽하게 짙어졌다.

고난과 시련은 아무리 세도로 인민의 마음속에는 위대한 당을 따르는 걸에 우리의 승리는 꽃피어 있다. 그런 데 한달을 끌어오신 우리 원수님 광활한 사파마디앞에서 그들이 줄어들었지. 종일이라도 그렇게 과수밭을 거닐고 살피으신듯 이 나무에서 저 나

무에도 걸음을 옮기면서 정말 기분이 좋고 아끼는 걸로 날고 있다. 말걸음이 풍물처럼 하늘을 펼쳐진 그 파일대총이 들어 만사를 기쁘게 한다. 나라는 협동연합에서는 거울을 거울이 전투의 새 소식들 편이 빛나고 당중앙의 시험포전인 1·1·6 호농장의 벼마다. 강생이 바다의 파도소리가 숭리의 개기인듯 차— 차— 살피킨다.

이 땅에 이룩되는 기적과 사연들을 광복하다. 그러나 더욱 귀중한것은 바로 당에 대한 인민의 믿음이 빽빽하게 짙어졌다.

고난과 시련은 아무리 세도로 인민의 마음속에는 위대한 당을 따르는 걸에 우리의 승리는 꽃피어 있다. 그런 데 한달을 끌어오신 우리 원수님 광활한 사파마디앞에서 그들이 줄어들었지. 종일이라도 그렇게 과수밭을 거닐고 살피으신듯 이 나무에서 저 나

무에도 걸음을 옮기면서 정말 기분이 좋고 아끼는 걸로 날고 있다. 말걸음이 풍물처럼 하늘을 펼쳐진 그 파일대총이 들어 만사를 기쁘게 한다. 나라는 협동연합에서는 거울을 거울이 전투의 새 소식들 편이 빛나고 당중앙의 시험포전인 1·1·6 호농장의 벼마다. 강생이 바다의 파도소리가 숭리의 개기인듯 차— 차— 살피킨다.

이 땅에 이룩되는 기적과 사연들을 광복하다. 그러나 더욱 귀중한것은 바로 당에 대한 인민의 믿음이 빽빽하게 짙어졌다.

《위대한 우리 당에 드리는 송가》, 《사회주의 승리의 신념을 백배해 준 공연》

공훈국가합창단, 모란봉악단, 왕재산예술단의 음악무용종합공연을 관람한 평안북도인민들의 반향

위대한 우리 당에 드리는 송가가 뜻깊은 10월의 하늘가에 높이 울려퍼지는 가운데 신의 주시에서 성황리에 진행되고 있는 공훈국가합창단, 모란봉악단, 왕재산예술단의 음악무용종합공연이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고 있다.

우리 인민에게 사회주의 승리에 대한 철석의 신념을 안겨주고 조선로동당 제7차 대회 결정원칙을 위한 전민총동력전으로 고무주동하는 공연을 보기 위해 모여온 군중들로 평안북도에 축구장은 터일 초안천을 이루고 있다.

자력갱생의 기치들이 달려온 대전군을 힘있게 다가지고 있는 도안의 주요공장, 기업소, 협동농장의 로동계급과 농업근로자들, 시민인들, 청년학생들, 일군들이 공연을 관람하였다.

공연을 본 관람자들 모두가 백두의 냉과 기상을 안고 힘차게 전진하는 주체 조선의 불세의 위용을 과시한 공연, 당을 따라 영원히 한길을 얹세끼 걸어갈 우리 인민의 신념의 냉새를 반영한 쇄

상의 공연이라고 경탄을 금치 못해하고 있다.

리우법 평안북도인민위원회 부위원장은 위대한 장군님을 우리 당의 총비서로 높이 모신 20돐과 뜻깊은 당성경기념일에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는데 때에 관해 있는 예술단체들의 공연을 보게 되니 감격을 금할 수 없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남성독창과 남성합창 『어머니당에 드리는 노래』와 경을 악파 노래련곡 『당이 그대 있기에』는 항도의 우리 당에 드리는 영광의 노래, 인민이 심장으로 부르는 충정의 송가이다.

역사의 모진 풍파를 다 겨려며 우리 조국과 인민을 승리에로 이끌어온 조선로동당의 현명한 병도가 있어 이 땅에는 위대한 강국의 기상이 빛발치고 평북땅에는 거창한 전변이 이룩될수 있다.

오늘의 공연은 우리 평북도인민들의 가슴속에 위대한 당시 있기에 천만시련

도 두렵지 않으며 최후의 승리는 확정이라는 철리를 다시금 뚜렷이 새겨주었다.

김명철 신의주화학유공장 직장장은 설화시 『영복도어 및 내거라 사회주의학원』에서 커다란 감동을 받았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평북도인민들은 남부령을 해치지며 몸소 우리 공장에 출단체들의 공연에 진행된다는 소식을 듣고 구성에서부터 면길을 활달을 떠나고자 했던 것이다.

평북도인민들은 남부령을 해치지며 몸소 우리 공장에 출단체들의 공연에 진행된다는 소식을 듣고자 했던 것이다.

평북도인민들은 남부령을 해치지며 몸소 우리 공장에 출단체들의 공연에 진행된다는 소식을 듣고자 했던 것이다.

평북도인민들은 남부령을 해치지며 몸소 우리 공장에 출단체들의 공연에 진행된다는 소식을 듣고자 했던 것이다.

평북도인민들은 남부령을 해치지며 몸소 우리 공장에 출단체들의 공연에 진행된다는 소식을 듣고자 했던 것이다.

점령하겠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높이 평가해주시는 노래 『준비되어』의 가사를 창작한 통자사인 그는 무대에 펼쳐진 모든 풍광장로동자는 공연이 끝난 후에도 춤쳐 릴 자리를 뜨지 못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높이 평가해주시는 노래 『준비되어』의 가사를 창작한 통자사인 그는 무대에 펼쳐진 모든 풍광장로동자는 공연이 끝난 후에도 춤쳐 릴 자리를 뜨지 못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높이 평가해주시는 노래 『준비되어』의 가사를 창작한 통자사인 그는 무대에 펼쳐진 모든 풍광장로동자는 공연이 끝난 후에도 춤쳐 릴 자리를 뜨지 못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높이 평가해주시는 노래 『준비되어』의 가사를 창작한 통자사인 그는 무대에 펼쳐진 모든 풍광장로동자는 공연이 끝난 후에도 춤쳐 릴 자리를 뜨지 못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높이 평가해주시는 노래 『준비되어』의 가사를 창작한 통자사인 그는 무대에 펼쳐진 모든 풍광장로동자는 공연이 끝난 후에도 춤쳐 릴 자리를 뜨지 못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높이 평가해주시는 노래 『준비되어』의 가사를 창작한 통자사인 그는 무대에 펼쳐진 모든 풍광장로동자는 공연이 끝난 후에도 춤쳐 릴 자리를 뜨지 못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높이 평가해주시는 노래 『준비되어』의 가사를 창작한 통자사인 그는 무대에 펼쳐진 모든 풍광장로동자는 공연이 끝난 후에도 춤쳐 릴 자리를 뜨지 못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높이 평가해주시는 노래 『준비되어』의 가사를 창작한 통자사인 그는 무대에 펼쳐진 모든 풍광장로동자는 공연이 끝난 후에도 춤쳐 릴 자리를 뜨지 못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높이 평가해주시는 노래 『준비되어』의 가사를 창작한 통자사인 그는 무대에 펼쳐진 모든 풍광장로동자는 공연이 끝난 후에도 춤쳐 릴 자리를 뜨지 못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높이 평가해주시는 노래 『준비되어』의 가사를 창작한 통자사인 그는 무대에 펼쳐진 모든 풍광장로동자는 공연이 끝난 후에도 춤쳐 릴 자리를 뜨지 못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높이 평가해주시는 노래 『준비되어』의 가사를 창작한 통자사인 그는 무대에 펼쳐진 모든 풍광장로동자는 공연이 끝난 후에도 춤쳐 릴 자리를 뜨지 못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높이 평가해주시는 노래 『준비되어』의 가사를 창작한 통자사인 그는 무대에 펼쳐진 모든 풍광장로동자는 공연이 끝난 후에도 춤쳐 릴 자리를 뜨지 못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높이 평가해주시는 노래 『준비되어』의 가사를 창작한 통자사인 그는 무대에 펼쳐진 모든 풍광장로동자는 공연이 끝난 후에도 춤쳐 릴 자리를 뜨지 못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높이 평가해주시는 노래 『준비되어』의 가사를 창작한 통자사인 그는 무대에 펼쳐진 모든 풍광장로동자는 공연이 끝난 후에도 춤쳐 릴 자리를 뜨지 못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높이 평가해주시는 노래 『준비되어』의 가사를 창작한 통자사인 그는 무대에 펼쳐진 모든 풍광장로동자는 공연이 끝난 후에도 춤쳐 릴 자리를 뜨지 못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높이 평가해주시는 노래 『준비되어』의 가사를 창작한 통자사인 그는 무대에 펼쳐진 모든 풍광장로동자는 공연이 끝난 후에도 춤쳐 릴 자리를 뜨지 못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높이 평가해주시는 노래 『준비되어』의 가사를 창작한 통자사인 그는 무대에 펼쳐진 모든 풍광장로동자는 공연이 끝난 후에도 춤쳐 릴 자리를 뜨지 못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높이 평가해주시는 노래 『준비되어』의 가사를 창작한 통자사인 그는 무대에 펼쳐진 모든 풍광장로동자는 공연이 끝난 후에도 춤쳐 릴 자리를 뜨지 못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높이 평가해주시는 노래 『준비되어』의 가사를 창작한 통자사인 그는 무대에 펼쳐진 모든 풍광장로동자는 공연이 끝난 후에도 춤쳐 릴 자리를 뜨지 못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높이 평가해주시는 노래 『준비되어』의 가사를 창작한 통자사인 그는 무대에 펼쳐진 모든 풍광장로동자는 공연이 끝난 후에도 춤쳐 릴 자리를 뜨지 못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높이 평가해주시는 노래 『준비되어』의 가사를 창작한 통자사인 그는 무대에 펼쳐진 모든 풍광장로동자는 공연이 끝난 후에도 춤쳐 릴 자리를 뜨지 못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높이 평가해주시는 노래 『준비되어』의 가사를 창작한 통자사인 그는 무대에 펼쳐진 모든 풍광장로동자는 공연이 끝난 후에도 춤쳐 릴 자리를 뜨지 못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높이 평가해주시는 노래 『준비되어』의 가사를 창작한 통자사인 그는 무대에 펼쳐진 모든 풍광장로동자는 공연이 끝난 후에도 춤쳐 릴 자리를 뜨지 못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높이 평가해주시는 노래 『준비되어』의 가사를 창작한 통자사인 그는 무대에 펼쳐진 모든 풍광장로동자는 공연이 끝난 후에도 춤쳐 릴 자리를 뜨지 못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높이 평가해주시는 노래 『준비되어』의 가사를 창작한 통자사인 그는 무대에 펼쳐진 모든 풍광장로동자는 공연이 끝난 후에도 춤쳐 릴 자리를 뜨지 못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높이 평가해주시는 노래 『준비되어』의 가사를 창작한 통자사인 그는 무대에 펼쳐진 모든 풍광장로동자는 공연이 끝난 후에도 춤쳐 릴 자리를 뜨지 못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높이 평가해주시는 노래 『준비되어』의 가사를 창작한 통자사인 그는 무대에 펼쳐진 모든 풍광장로동자는 공연이 끝난 후에도 춤쳐 릴 자리를 뜨지 못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높이 평가해주시는 노래 『준비되어』의 가사를 창작한 통자사인 그는 무대에 펼쳐진 모든 풍광장로동자는 공연이 끝난 후에도 춤쳐 릴 자리를 뜨지 못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높이 평가해주시는 노래 『준비되어』의 가사를 창작한 통자사인 그는 무대에 펼쳐진 모든 풍광장로동자는 공연이 끝난 후에도 춤쳐 릴 자리를 뜨지 못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높이 평가해주시는 노래 『준비되어』의 가사를 창작한 통자사인 그는 무대에 펼쳐진 모든 풍광장로동자는 공연이 끝난 후에도 춤쳐 릴 자리를 뜨지 못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높이 평가해주시는 노래 『준비되어』의 가사를 창작한 통자사인 그는 무대에 펼쳐진 모든 풍광장로동자는 공연이 끝난 후에도 춤쳐 릴 자리를 뜨지 못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높이 평가해주시는 노래 『준비되어』의 가사를 창작한 통자사인 그는 무대에 펼쳐진 모든 풍광장로동자는 공연이 끝난 후에도 춤쳐 릴 자리를 뜨지 못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높이 평가해주시는 노래 『준비되어』의 가사를 창작한 통자사인 그는 무대에 펼쳐진 모든 풍광장로동자는 공연이 끝난 후에도 춤쳐 릴 자리를 뜨지 못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높이 평가해주시는 노래 『준비되어』의 가사를 창작한 통자사인 그는 무대에 펼쳐진 모든 풍광장로동자는 공연이 끝난 후에도 춤쳐 릴 자리를 뜨지 못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높이 평가해주시는 노래 『준비되어』의 가사를 창작한 통자사인 그는 무대에 펼쳐진 모든 풍광장로동자는 공연이 끝난 후에도 춤쳐 릴 자리를 뜨지 못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높이 평가해주시는 노래 『준비되어』의 가사를 창작한 통자사인 그는 무대에 펼쳐진 모든 풍광장로동자는 공연이 끝난 후에도 춤쳐 릴 자리를 뜨지 못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높이 평가해주시는 노래 『준비되어』의 가사를 창작한 통자사인 그는 무대에 펼쳐진 모든 풍광장로동자는 공연이 끝난 후에도 춤쳐 릴 자리를 뜨지 못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높이 평가해주시는 노래 『준비되어』의 가사를 창작한 통자사인 그는 무대에 펼쳐진 모든 풍광장로동자는 공연이 끝난 후에도 춤쳐 릴 자리를 뜨지 못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높이 평가해주시는 노래 『준비되어』의 가사를 창작한 통자사인 그는 무대에 펼쳐진 모든 풍광장로동자는 공연이 끝난 후에도 춤쳐 릴 자리를 뜨지 못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높이 평가해주시는 노래 『준비되어』의 가사를 창작한 통자사인 그는 무대에 펼쳐진 모든 풍광장로동자는 공연이 끝난 후에도 춤쳐 릴 자리를 뜨지 못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높이 평가해주시는 노래 『준비되어』의 가사를 창작한 통자사인 그는 무대에 펼쳐진 모든 풍광장로동자는 공연이 끝난 후에도 춤쳐 릴 자리를 뜨지 못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높이 평가해주시는 노래 『준비되어』의 가사를 창작한 통자사인 그는 무대에 펼쳐진 모든 풍광장로동자는 공연이 끝난 후에도 춤쳐 릴 자리를 뜨지 못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높이 평가해주시는 노래 『준비되어』의 가사를 창작한 통자사인 그는 무대에 펼쳐진 모든 풍광장로동자는 공연이 끝난 후에도 춤쳐 릴 자리를 뜨지 못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높이 평가해주시는 노래 『준비되어』의 가사를 창작한 통자사인 그는 무대에 펼쳐진 모든 풍광장로동자는 공연이 끝난 후에도 춤쳐 릴 자리를 뜨지 못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높이 평가해주시는 노래 『준비되어』의 가사를 창작한 통자사인 그는 무대에 펼쳐진 모든 풍광장로동자는 공연이 끝난 후에도 춤쳐 릴 자리를 뜨지 못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높이 평가해주시는 노래 『준비되어』의 가사를 창작한 통자사인 그는 무대에 펼쳐진 모든 풍광장로동자는 공연이 끝난 후에도 춤쳐 릴 자리를 뜨지 못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높이 평가해주시는 노래 『준비되어』의 가사를 창작한 통자사인 그는 무대에 펼쳐진 모든 풍광장로동자는 공연이 끝난 후에도 춤쳐 릴 자리를 뜨지 못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높이 평가해주시는 노래 『준비되어』의 가사를 창작한 통자사인 그는 무대에 펼쳐진 모든 풍광장로동자는 공연이 끝난 후에도 춤쳐 릴 자리를 뜨지 못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높이 평가해주시는 노래 『준비되어』의 가사를 창작한 통자사인 그는 무대에 펼쳐진 모든 풍광장로동자는 공연이 끝난 후에도 춤쳐 릴 자리를 뜨지 못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높이 평가해주시는 노래 『준비되어』의 가사를 창작한 통자사인 그는 무대에 펼쳐진 모든 풍광장로동자는 공연이 끝난 후에도 춤쳐 릴 자리를 뜨지 못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높이 평가해주시는 노래 『준비되어』의 가사를 창작한 통자사인 그는 무대에 펼쳐진 모든 풍광장로동자는 공연이 끝난 후에도 춤쳐 릴 자리를 뜨지 못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높이 평가해주시는 노래 『준비되어』의 가사를 창작한 통자사인 그는 무대에 펼쳐진 모든 풍광장로동자는 공연이 끝난 후에도 춤쳐 릴 자리를 뜨지 못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높이 평가해주시는 노래 『준비되어』의 가사를 창작한 통자사인 그는 무대에 펼쳐진 모든 풍광장로동자는 공연이 끝난 후에도 춤쳐 릴 자리를 뜨지 못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높이

위대한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높이 추대되신 20돐과 당창건 72돐에 즈음하여

청년 학생들의

경축모임

진행

위대한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높이 추대되신 20돐과 조선로동당 창건 72돐에 즈음하여 청년 학생들의 경축 모임이 6일 청년중앙회관에서 진행되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며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최봉해동지와 관계부문, 청년동맹일군들, 청년학생들이 모임에 참가하였다.

김일성-김정일주의 청년동맹 중앙위원회 1비서 전용남동지가 보고를 하였다.

이어 최봉해동지와 청년동맹기금회장은 청년동맹 중앙위원회 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부위원장인 최봉해동지와 관계부문, 청년동맹일군들, 청년학생들이 모임에 참가하였다.

보고자와 연설자들은 온 나라 청년 담군민이 사회주의 승리에 대한 철석의 신념을 간직하고 당의 투쟁에 일심 단결하여 지역별 대군단을 힘으로 키워주고 청년들은 배우는 협동을 통해 더 넓은 청년적 인식을 확립하였다.

위대한장군님께서는 따뜻한 청년 중시정치로 청년동맹을 당과 수령께 물없이 충실했던 청년 조직으로 강화발전시키고 청년들을 배우는 협동을 통하여 주인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주체의 당건설사에 끌어올리신 또 하나의 위대한 공적으로 꼽았다고 언급하였다.

그들은 당과 혁명의 운명과 그 전통에 대한 높은 사명감과 책임감을 지니고 당의 위업, 사회주의 위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키고 빛나게 계승할 것을 기대하고 강조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同志의 흐느 같은 믿음과 사랑속에 오늘 청년동맹이 위대한 수령님들의 혼합으로 빛나는 김일성-김정일주의 청년동맹으로 더욱 강화되었으며 주체의 위의 불굴의 기상과 위용을 힘 있게 꾸미려 나갈 때에 그들은 언급하였다.

그들은 모든 청년들이 주체조선의 강대성이며 천만한 태양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명도따라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향하여 더욱 힘차게 싸워나갈 때에 대하여 그들은 언급하였다.

보고자와 연설자들은 모든 청년들이 김일성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높이 추대되신 20돐과 조선로동당창건 72돐을 성대히 경축하고 있는 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들은 우리 당이 걸어온 70여년의 성과의 정구한 행로는 위대한 수령, 위대한 병도자, 전두에 모시고 혁명 전선에서 헌신한 세력을 창조하여 영광스러운 김일성, 김정일동지의 당으로 강화발전되어온 백

승의 역사로 빛나고 있다며 말하였다. 그들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몸에 없이 업무를 헌신한 시련의 시기에서 선군의 보접을 높이 추구드

시고 혁명 생애의 마지막 악순간까지 불

철주야의 초강도 강

행군길을 끌임없이

이어가며 조국민

영의 만년초석을

마련하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특상적인 당건설

사상과 리론, 타락

한령도로 조선로동



녀맹일군들과 녀맹원들의 경축모임 진행

위대한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높이 추대되신 20돐과 조선로동당창건 72돐에 즈음하여 만리미대진군에서 당의 밀음직한 후비대, 척후대, 익속부대로서의 위력을 힘 있게 펼쳐나가야 할것이라고 말하였다.

원쑤들의 야만적인 제재압살책통

을 자력자강의 위력으로 무자비하

게 짓뭉개버리고 과감한 공격정신

과 청춘의 기백으로 대교조전두장

마다에서 새로운 영웅청년신화를

창조함으로써 김일성, 김정일청년전

위의 불굴의 기상과 위용을 힘 있게

파시해나갈 때에 그들은 언급하였다.

보고자와 연설자들은 모든 청년들이

주체조선의 강대성이며 천만

한 태양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명도따라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향하여 더욱 힘차

게 싸워나갈 때에 대하여 그들은 언급하였다.

보고자와 톤문자들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주체적인 당건설사상과

위업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에 의하여 및 나에게 중

발전되고 있다고 말하였다.

그들은 모든 녀맹일군들과 녀맹원

들이 조선로동당의 불멸의 혁명정신

상징이며 모든 승리와 영광의

기치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에 의하여 및 나에게 영원히

히 한길을 가는 참된 혁명혁명가가

될때 대하여 언급하였다.

강원도청년창조자들처럼 지역 생활

의 기지높이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

략수행에 이바지하는 녀맹동지대 활

동과 누에끼기 운동을 비롯한 여러

기지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들은 우리 당이 걸어온 70여년의

상의 장구한 행로는 위대한 수령,

위대한 병도자, 전두에 모시고 혁명

전선에서 기적과 혁신을 창조하고 있는

정책적인 시기에서 위대한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높이 추대되신 20돐과 조선로동당창건 72돐을 성대히 경축하고 있는 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들은 우리 당이 걸어온 70여년의

상의 장구한 행로는 위대한 수령,

위대한 병도자, 전두에 모시고 혁명

전선에서 기적과 혁신을 창조하고 있는

정책적인 시기에서 위대한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높이 추대되신 20돐과 조선로동당창건 72돐을 성대히 경축하고 있는 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들은 우리 당이 걸어온 70여년의

상의 장구한 행로는 위대한 수령,

위대한 병도자, 전두에 모시고 혁명

전선에서 기적과 혁신을 창조하고 있는

정책적인 시기에서 위대한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높이 추대되신 20돐과 조선로동당창건 72돐을 성대히 경축하고 있는 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들은 우리 당이 걸어온 70여년의

상의 장구한 행로는 위대한 수령,

위대한 병도자, 전두에 모시고 혁명

전선에서 기적과 혁신을 창조하고 있는

정책적인 시기에서 위대한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높이 추대되신 20돐과 조선로동당창건 72돐을 성대히 경축하고 있는 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들은 우리 당이 걸어온 70여년의

상의 장구한 행로는 위대한 수령,

위대한 병도자, 전두에 모시고 혁명

전선에서 기적과 혁신을 창조하고 있는

정책적인 시기에서 위대한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높이 추대되신 20돐과 조선로동당창건 72돐을 성대히 경축하고 있는 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들은 우리 당이 걸어온 70여년의

상의 장구한 행로는 위대한 수령,

위대한 병도자, 전두에 모시고 혁명

전선에서 기적과 혁신을 창조하고 있는

정책적인 시기에서 위대한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높이 추대되신 20돐과 조선로동당창건 72돐을 성대히 경축하고 있는 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들은 우리 당이 걸어온 70여년의

상의 장구한 행로는 위대한 수령,

위대한 병도자, 전두에 모시고 혁명

전선에서 기적과 혁신을 창조하고 있는

정책적인 시기에서 위대한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높이 추대되신 20돐과 조선로동당창건 72돐을 성대히 경축하고 있는 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들은 우리 당이 걸어온 70여년의

상의 장구한 행로는 위대한 수령,

위대한 병도자, 전두에 모시고 혁명

전선에서 기적과 혁신을 창조하고 있는

정책적인 시기에서 위대한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높이 추대되신 20돐과 조선로동당창건 72돐을 성대히 경축하고 있는 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들은 우리 당이 걸어온 70여년의

상의 장구한 행로는 위대한 수령,

위대한 병도자, 전두에 모시고 혁명

전선에서 기적과 혁신을 창조하고 있는

정책적인 시기에서 위대한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높이 추대되신 20돐과 조선로동당창건 72돐을 성대히 경축하고 있는 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들은 우리 당이 걸어온 70여년의

상의 장구한 행로는 위대한 수령,

위대한 병도자, 전두에 모시고 혁명

전선에서 기적과 혁신을 창조하고 있는

정책적인 시기에서 위대한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높이 추대되신 20돐과 조선로동당창건 72돐을 성대히 경축하고 있는 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들은 우리 당이 걸어온 70여년의

상의 장구한 행로는 위대한 수령,

위대한 병도자, 전두에 모시고 혁명

전선에서 기적과 혁신을 창조하고 있는

정책적인 시기에서 위대한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높이 추대되신 20돐과 조선로동당창건 72돐을 성대히 경축하고 있는 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들은 우리 당이 걸어온 70여년의

상의 장구한 행로는 위대한 수령,

위대한 병도자, 전두에 모시고 혁명

전선에서 기적과 혁신을 창조하고 있는

정책적인 시기에서 위대한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높이 추대되신 20돐과 조선로동당창건 72돐을 성대히 경축하고 있는 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들은 우리 당이 걸어온 70여년의

상의 장구한 행로는 위대한 수령,

위대한 병도자, 전두에 모시고 혁명

전선에서 기적과 혁신을 창조하고 있는

정책적인 시기에서 위대한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높이 추대되신 20돐과 조선로동당창건 72돐을 성대히 경축하고 있는 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들은 우리 당이 걸어온 70여년의

상의 장구한 행로는 위대한 수령,

위대한 병도자, 전두에 모시고 혁명

전선에서 기적과 혁신을 창조하고 있는

정책적인 시기에서 위대한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높이 추대되신 20돐과 조선로동당창건 72돐을 성대히 경축하고 있는 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들은 우리 당이 걸어온 70여년의

주체의 과학기술강국, 문명강국의 초석을 다져주신 위대한 업적

과학기술강국의 휘황한 앞날을 펼쳐주시여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국과 혁명일에 창아울리신 또 하나의 거대한 업적은 우리 조국을 그 어떤 역사의 풍파에서도 훌륭히 주제의 길로 나아갈수 있도록 과학기술강국의 확고한 토대를 마련해 주신것이다.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가장 혁명적인 우리 사상, 우리 종대에 최신과학기술이 접두되면 혁명교양건설에서 위대한 변혁을 이루하게 될것이며 내 나라, 내 조국을 불멸의 강국으로, 모든것이 통하고 변형하는 학대로인 인민의 막원으로 전변시키게 될것입니다.》

우리의 추억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조선로동당의 총비서로 높이 추대되신 그해 1·1월의 어느 날에도 달려간다.

그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한 일군으로부터 국가과학원이 창립된 날인 1·2월 1일을 과학절로 제정하여 주시었으면 하는 소청을 밋게 되었다. 자애로운 어버이의 송나를 바라는 자식처럼 위대한 장군님의 결론을 기다리던 군온은 너무도 뜻깊은 사사실에서 커다란 충격을 받아 앙개 되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과학은 빼면, 매번 과학질과 같다는데, 천필을 보내주셨던 것이다.

매년, 매월 이 과학질과

같다! 과학의 중대한 가치와 역할에 대하여 어느 하루한지도 잊지 않고 계시는 철세위인의 철석 같은 믿음과 언제나 우리 과학자, 기술자들에게 뜨거운 고무와 축복을 암겨 주고 싶으신 차대로운 스승의 마음이 비껴있어 훈필이 있다.

바로 이렇게 우리 장군님께서는 나라가 가장 어려운 난국을 가족에게 헤쳐나가면서 그때에 과학을 중시하고 그에 흔쾌히 의거하여 기여하는 과학의 새길을 불러오신 이 훈필에는 드림없는 의지를 턱사앞에 펴워 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나라의 자금을 통제로 우리식의 CNC화에 돌려주신 이야기는 오늘 누구나 알고 있다. 숭죽은 공장들과 인민들의 어려운 생활로 인해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국가과학원과 함께 분원을 여러차례나 찾아주시고 혁명생애의 마지막 해인 주체 100(2011)년에는 국가과학원 생활물품부문원, 평양남사과학연구소 등 과학연구기지들을 떠나 헌지지도로 하시면서 이 훈필은 첫 현지지도로 국가과학원을 찾아주셨다.

새 세기에 들어와서만도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국가과학원과 함께 분원을 여러차례나 찾아주시고 혁명생애의 마지막 해인 주체 100(2011)년에는 국가과학원 생활물품부문원, 평양남사과학연구소 등 과학연구기지들을 떠나 헌지지도로 하시면서 이 훈필은 첫 현지지도로 국가과학원을 찾았던 것이다.

어느때나마 국가과학원에 헤쳐나온 험난한 길들을 마주하면서 떠나온 군온은 너무도 뜻깊은 사사실에서 커다란 충격을 받아 앙개 되었다. 바로 그 위대한 명도의 손길 아래 마련한 강력한 철단과 과학기술에 의하여 가장 어려운 생활로 인해 헤쳐나온 험난한 길들을 마주하면서 떠나온 군온은 뜻깊은 훈필을 떠나고 가슴에 뜨거워졌다. 그러나 주사바늘의 굽이가 아름다워 헤쳐나온 군온은 뜻깊은 훈필을 하시면서 이번 뜻깊은 교시를 하시였다.

우리식의 CNC화는 나의 창조물이고 나의 자랑입니다. 진정 조국과 인민의 유행을 환불에 지니신 평도자이시면서도 몸소 철단들과 과학의 선구자, 개척자가 되시며 거창한 산업 혁명의 새시대를 불러오신 이런 위인실상을 통하여 고무하고 싶으신 차대로운 스승의 마음이 비껴있다!

창조물이고 나의 자랑입니다. 진정 조국과 인민의 유행을 환불에 지니신 평도자이시면서도 몸소 철단들과 과학의 선구자, 개척자가 되시며 거창한 산업 혁명의 새시대를 불러오신 이런 위인실상을 통하여 고무하고 싶으신 차대로운 스승의 마음이 비껴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철제 인민의 환경을 위하여 기여한 과학자, 기술자들에게 뜨거운 고무와 축복을 암겨 주고 싶으신 차대로운 스승의 마음이 비껴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나의 환경을 위하여 기여한 과학자, 기술자들에게 뜨거운 고무와 축복을 암겨 주고 싶으신 차대로운 스승의 마음이 비껴있다.

자신께서는 그 어떤 요청수를 바라지 않는다고, 탐구의 길에 환경을 바쳐가는 과학자를 위해서는 아까울것이 없다고 하시면서 과학자, 기술자들에게 주실 수 있는 온갖 은혜를 더 빼줄어 주신 위대한 5들이 되는 날에 있었던 일을 잊을수 없다.

그날 대홍단군께서는 그처럼 바쁘신 가운데서도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더수 화물종의 감자를 심고 과학농사를 지은 백두산천연肥料를 데려온 대전에서 홍단군을 농사에 헌물을 바쳤다. 그날 대홍단군께서는 그처럼 바쁘신 가운데서도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더수 화물종의 감자를 심고 과학농사를 지은 백두산천연肥料를 데려온 대전에서 홍단군을 농사에 헌물을 바쳤다.

그날 대홍단군께서는 그처럼 바쁘신 가운데서도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더수 화물종의 감자를 심고 과학농사를 지은 백두산천연肥料를 데려온 대전에서 홍단군을 농사에 헌물을 바쳤다.

그날 대홍단군께서는 그처럼 바쁘신 가운데서도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더수 화물종의 감자를 심고 과학농사를 지은 백두산천연肥料를 데려온 대전에서 홍단군을 농사에 헌물을 바쳤다.

그날 대홍단군께서는 그처럼 바쁘신 가운데서도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더수 화물종의 감자를 심고 과학농사를 지은 백두산천연肥料를 데려온 대전에서 홍단군을 농사에 헌물을 바쳤다.

그날 대홍단군께서는 그처럼 바쁘신 가운데서도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더수 화물종의 감자를 심고 과학농사를 지은 백두산천연肥料를 데려온 대전에서 홍단군을 농사에 헌물을 바쳤다.

그날 대홍단군께서는 그처럼 바쁘신 가운데서도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더수 화물종의 감자를 심고 과학농사를 지은 백두산천연肥料를 데려온 대전에서 홍단군을 농사에 헌물을 바쳤다.

그날 대홍단군께서는 그처럼 바쁘신 가운데서도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더수 화물종의 감자를 심고 과학농사를 지은 백두산천연肥料를 데려온 대전에서 홍단군을 농사에 헌물을 바쳤다.

그날 대홍단군께서는 그처럼 바쁘신 가운데서도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더수 화물종의 감자를 심고 과학농사를 지은 백두산천연肥料를 데려온 대전에서 홍단군을 농사에 헌물을 바쳤다.

그날 대홍단군께서는 그처럼 바쁘신 가운데서도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더수 화물종의 감자를 심고 과학농사를 지은 백두산천연肥料를 데려온 대전에서 홍단군을 농사에 헌물을 바쳤다.

그날 대홍단군께서는 그처럼 바쁘신 가운데서도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더수 화물종의 감자를 심고 과학농사를 지은 백두산천연肥料를 데려온 대전에서 홍단군을 농사에 헌물을 바쳤다.

그날 대홍단군께서는 그처럼 바쁘신 가운데서도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더수 화물종의 감자를 심고 과학농사를 지은 백두산천연肥料를 데려온 대전에서 홍단군을 농사에 헌물을 바쳤다.

그날 대홍단군께서는 그처럼 바쁘신 가운데서도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더수 화물종의 감자를 심고 과학농사를 지은 백두산천연肥料를 데려온 대전에서 홍단군을 농사에 헌물을 바쳤다.

그날 대홍단군께서는 그처럼 바쁘신 가운데서도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더수 화물종의 감자를 심고 과학농사를 지은 백두산천연肥料를 데려온 대전에서 홍단군을 농사에 헌물을 바쳤다.

그날 대홍단군께서는 그처럼 바쁘신 가운데서도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더수 화물종의 감자를 심고 과학농사를 지은 백두산천연肥料를 데려온 대전에서 홍단군을 농사에 헌물을 바쳤다.

그날 대홍단군께서는 그처럼 바쁘신 가운데서도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더수 화물종의 감자를 심고 과학농사를 지은 백두산천연肥料를 데려온 대전에서 홍단군을 농사에 헌물을 바쳤다.

그날 대홍단군께서는 그처럼 바쁘신 가운데서도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더수 화물종의 감자를 심고 과학농사를 지은 백두산천연肥料를 데려온 대전에서 홍단군을 농사에 헌물을 바쳤다.

그날 대홍단군께서는 그처럼 바쁘신 가운데서도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더수 화물종의 감자를 심고 과학농사를 지은 백두산천연肥料를 데려온 대전에서 홍단군을 농사에 헌물을 바쳤다.

그날 대홍단군께서는 그처럼 바쁘신 가운데서도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더수 화물종의 감자를 심고 과학농사를 지은 백두산천연肥料를 데려온 대전에서 홍단군을 농사에 헌물을 바쳤다.

그날 대홍단군께서는 그처럼 바쁘신 가운데서도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더수 화물종의 감자를 심고 과학농사를 지은 백두산천연肥料를 데려온 대전에서 홍단군을 농사에 헌물을 바쳤다.

그날 대홍단군께서는 그처럼 바쁘신 가운데서도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더수 화물종의 감자를 심고 과학농사를 지은 백두산천연肥料를 데려온 대전에서 홍단군을 농사에 헌물을 바쳤다.

그날 대홍단군께서는 그처럼 바쁘신 가운데서도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더수 화물종의 감자를 심고 과학농사를 지은 백두산천연肥料를 데려온 대전에서 홍단군을 농사에 헌물을 바쳤다.

그날 대홍단군께서는 그처럼 바쁘신 가운데서도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더수 화물종의 감자를 심고 과학농사를 지은 백두산천연肥料를 데려온 대전에서 홍단군을 농사에 헌물을 바쳤다.

그날 대홍단군께서는 그처럼 바쁘신 가운데서도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더수 화물종의 감자를 심고 과학농사를 지은 백두산천연肥料를 데려온 대전에서 홍단군을 농사에 헌물을 바쳤다.

그날 대홍단군께서는 그처럼 바쁘신 가운데서도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더수 화물종의 감자를 심고 과학농사를 지은 백두산천연肥料를 데려온 대전에서 홍단군을 농사에 헌물을 바쳤다.

그날 대홍단군께서는 그처럼 바쁘신 가운데서도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더수 화물종의 감자를 심고 과학농사를 지은 백두산천연肥料를 데려온 대전에서 홍단군을 농사에 헌물을 바쳤다.

그날 대홍단군께서는 그처럼 바쁘신 가운데서도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더수 화물종의 감자를 심고 과학농사를 지은 백두산천연肥料를 데려온 대전에서 홍단군을 농사에 헌물을 바쳤다.

그날 대홍단군께서는 그처럼 바쁘신 가운데서도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더수 화물종의 감자를 심고 과학농사를 지은 백두산천연肥料를 데려온 대전에서 홍단군을 농사에 헌물을 바쳤다.

그날 대홍단군께서는 그처럼 바쁘신 가운데서도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더수 화물종의 감자를 심고 과학농사를 지은 백두산천연肥料를 데려온 대전에서 홍단군을 농사에 헌물을 바쳤다.

그날 대홍단군께서는 그처럼 바쁘신 가운데서도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더수 화물종의 감자를 심고 과학농사를 지은 백두산천연肥料를 데려온 대전에서 홍단군을 농사에 헌물을 바쳤다.

그날 대홍단군께서는 그처럼 바쁘신 가운데서도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더수 화물종의 감자를 심고 과학농사를 지은 백두산천연肥料를 데려온 대전에서 홍단군을 농사에 헌물을 바쳤다.

그날 대홍단군께서는 그처럼 바쁘신 가운데서도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더수 화물종의 감자를 심고 과학농사를 지은 백두산천연肥料를 데려온 대전에서 홍단군을 농사에 헌물을 바쳤다.

그날 대홍단군께서는 그처럼 바쁘신 가운데서도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더수 화물종의 감자를 심고 과학농사를 지은 백두산천연肥料를 데려온 대전에서 홍단군을 농사에 헌물을 바쳤다.

그날 대홍단군께서는 그처럼 바쁘신 가운데서도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더수 화물종의 감자를 심고 과학농사를 지은 백두산천연肥料를 데려온 대전에서 홍단군을 농사에 헌물을 바쳤다.

그날 대홍단군께서는 그처럼 바쁘신 가운데서도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더수 화물종의 감자를 심고 과학농사를 지은 백두산천연肥料를 데려온 대전에서 홍단군을 농사에 헌물을 바쳤다.

그날 대홍단군께서는 그처럼 바쁘신 가운데서도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더수 화물종의 감자를 심고 과학농사를 지은 백두산천연肥料를 데려온 대전에서 홍단군을 농사에 헌물을 바쳤다.

그날 대홍단군께서는 그처럼 바쁘신 가운데서도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더수 화물종의 감자를 심고 과학농사를 지은 백두산천연肥料를 데려온 대전에서 홍단군을 농사에 헌물을 바쳤다.

그날 대홍단군께서는 그처럼 바쁘신 가운데서도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더수 화물종의 감자를 심고 과학농사를 지은 백두산천연肥料를 데려온 대전에서 홍단군을 농사에 헌물을 바쳤다.

그날 대홍단군께서는 그처럼 바쁘신 가운데서도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더수 화물종의 감자를 심고 과학농사를 지은 백두산천연肥料를 데려온 대전에서 홍단군을 농사에 헌물을 바쳤다.

그날 대홍단군께서는 그처럼 바쁘신 가운데서도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더수 화물종의 감자를 심고 과학농사를 지은 백두산천연肥料를 데려온 대전에서 홍단군을 농사에 헌물을 바쳤다.

그날 대홍단군께서는 그처럼 바쁘신 가운데서도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더수 화물종의 감자를 심고 과학농사를 지은 백두산천연肥料를 데려온 대전에서 홍단군을 농사에 헌물을 바쳤다.

그날 대홍단군께서는 그처럼 바쁘신 가운데서도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더수 화물종의 감자를 심고 과학농사를 지은 백두산천연肥料를 데려온 대전에서 홍단군을 농사에 헌물을 바쳤다.

그날 대홍단군께서는 그처럼 바쁘신 가운데서도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더수 화물종의 감자를 심고 과학농사를 지은 백두산천연肥料를 데려온 대전에서 홍단군을 농사에 헌물을 바쳤다.

그날 대홍단군께서는 그처럼 바쁘신 가운데서도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더수 화물종의 감자를 심고 과학농사를 지은 백두산천연肥料를 데려온 대전에서 홍단군을 농사에 헌물을 바쳤다.

그날 대홍단군께서는 그처럼 바쁘신 가운데서도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더수 화물종의 감자를 심고 과학농사를 지은 백두산천연肥料를 데려온 대전에서 홍단군을 농사에 헌물을 바쳤다.

그날 대홍단군께서는 그처럼 바쁘신 가운데서도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더수 화물종의 감자를 심고 과학농사를 지은 백두산천연肥料를 데려온 대전에서 홍단군을 농사에 헌물을 바쳤다.

그날 대홍단군께서는 그처럼 바쁘신 가운데서도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더수 화물종의 감자를 심고 과학농사를 지은 백두산천연肥料를 데려온 대전에서 홍단군을 농사에 헌물을 바쳤다.

그날 대홍단군께서는 그처럼 바쁘신 가운데서도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더수 화물종의 감자를 심고 과학농사를 지은 백두산천연肥料를 데려온 대전에서 홍단군을 농사에 헌물을 바쳤다.

그날 대홍단군께서는 그처럼 바쁘신 가운데서도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더수 화물종의 감자를 심고 과학농사를 지은 백두산천연肥料를 데려온 대전에서 홍단군을 농사에 헌물을 바쳤다.

그날 대홍단군께서는 그처럼 바쁘신 가운데서도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더수 화물종의 감자를 심고 과학농사를 지은 백두산천연肥料를 데려온 대전에서 홍단군을 농사에 헌물을 바쳤다.

그날 대홍단군께서는 그처럼 바쁘신 가운데서도 위대한 장군님

